社 說

성찰과 추진력으로 시대등불 되길

— 제25대 총학생회 출범식에 부쳐

제25대 양캠퍼스 총학생회 출범식이 이번주 안에 각각 있을 예정이다.

학생자치기구의 대표가 재학생들에게 총노선을 선포, 함께 1년의 힘찬 전진을 기약하는 날이 될 것이다.

오늘날 사회 분위기는 참으로 중잡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경제적으로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신한국 건설 기치를 들고 있지만 그 실상과 전망이 국민들에게는 아직 요원하고 불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조의 파급현상으로 가치관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가 이러할 때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소위 말하는 지성인 계층인 대학인의 사명은 어느 누구보다 크다 하겠다. 이에 이 사회 속에서 대학인이 진정으로 해야 할일을 굴입없이 제기해 주고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이 바로 총학생회에게 주어진 몫인 것이다.

이미 제25대 총학생회는 많은 사업들을 계획·추진 중이다. 학원자주화 투쟁에서 대정부 투쟁까지 좌년 총학생회 선거시 공약으로 제시한바를 충실히이행하려하고있다.

여기서 특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24대 총학생회에 이어 올해 역시 제반 사업의 진행이 학생회 강화 측면에서 우선 기반한다는 사실이다. 아래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 힘을 결집하려 하는 것이다. 단대 학생회에서 과, 그리고 학년 학생회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다름아닌 '아래로부터 위로'라는 대의명분이 정작 일을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게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러한 의혹을 쉽게 뿌리치기가 힘들다. 학년대표까지 포함한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대회, 전체학생회대간부회의, 5백 간부회의 등 기층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얻은 요구안들을 취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형식에 너무 집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학내에서 '토론'이 거의 구호성을 띠고 플랭카드, 대자보 등이 난무하지만 기층단위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느끼지 못했음을, 그리고 사업의 추진력에 있어서도 학내 분위기가 예년보다 침체되었음을 말하는 재학생이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다시한번 지금 현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아래로부터의 여론수렴도 중요하지만 그 여론이 잘 형성되고 있는지 토론이 잘 되고 있는지 검증해보고, 그것을 실천으로 승화했는지 돌아보자. 또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라도 한자리에 모여 총학생회의 믿음직한 목소리를 들고 싶어 하는 재학생도 있음을 기억하자.

아무튼 특정 사안이 없으면서도 그 병폐들이 끝없이 녹아 스며들어 가는 이 어려운 시대, 총대를 맨 총학생회의 일신우일신을 기대해 본다.

전면적·제도적 조치로 엄단해야

— 공직자 재산공개를 지켜보며

요며칠간 우리 국민들은 너나할것없이 들만 보이더라도 정치인들의 '재산공개'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도 설마설마 했는데 그렇게나 썩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심 안도의 여유를 갖게 되는것은 그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청와대나 민자당의 문책 및 당국의 조사, 그리고 도덕적, 정치적 책임추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 몇몇 눈치빠른 국회의원들은 공직사퇴를 하거나 납득도 되지 않는 사의표명을 하는등 나름의 정치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한낱 '정치적 쇼'같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김영삼대통령의 원칙 없는 윗물정화노력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경제를 회생시킬수만 있다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자당의 재산공개의 경우 부동산에 한해 한정하였기 망정이지 현금, 귀금속등 동산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우리국민들은 까무라쳤을 것이 분명하다.

여당 국회의원과 당무위원에 이어 야당과 차관 그리고 경찰, 군, 사법부도 재산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어느 정도나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공개를 앞둔 정부고위관리들은 민자당의원과 국무위원들처럼 속이고, 감추고, 줄이는 저급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국민들앞에 공개할때만이 짝지만 나름의 절망속의 희망을 안겨줄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에서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개정안은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일본및 서구나 라들처럼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공개범위 또한 부동산및 천만원이상의 동산, 5백만원이치 이상의 보석류등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러할때만이 국민과 정치인들간의 믿음과 신뢰가 자라날수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계속 이어질 재산공개의 과정에서 탈법, 부기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고 고의적 미신고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도의적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분노한 시민단체에서는 의원들의 재산을 확인, 고발신고운동을 벌이는 등 김영삼 대통령의 '윗물닦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계속 표출될것이 분명하다. 이에 여야를 불문한 모든 공직자들은 솔직한 재산공개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역시 선별적, 부분적조치가 아닌 전면적, 제도적 조치를 엄격하게 실시해야만 국민들에게부터 마지막 박수를 받게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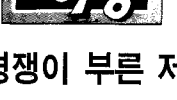
방송

시청자 경쟁이 부른 저질문화

방송은 흔히 여러석은 문화에 비유되고, 그 대표적 매체인 텔레비전 수상기는 '바보상자'로 비하되기 일쑤다. 이는 방송이 갖는 대중성과 획일성, 마취성 등의 역기능적 역할을 탓하는 데서 나온 말들이다. 그러나 이런 꼬집음 밑에도 임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일단은 대중적인 내용을 위주로 편성, 제작할 수 밖에 없음에 대한 이해는 깔려있다. 즉 방송 본연의 기능을 항상 기억하고 그에 대치되는 경향을 제어하려는 비판인 것이다.

방송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요즘의 방송기를 관망해 보면 방송매체는 점차 오락적 기능과 보도기능으로 대별되어 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 중 문제는 뉴스보도를 제외한 일반 프로그램들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전형자들의 언필성 '농담따먹기'와 사담 늘어놓기로 꽉 채워져 있고, TV드라마들은 한 대 세 방송사가 바람이나 난 듯 불붙은 경쟁을 벌여댄 바 있으며, 쇼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밤 시간대 편성이라는 궁색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판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률 경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육박전을 방불케 하는 시청률 높이기 싸움을 벌여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방송의 가장 기본적 전제 속에 깔고 있어야 할 시청자를 져버리는 처사다.



우리 방송사가 지금 경쟁해야 할 것은 시청률 전쟁이 아니다. 어느 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 금방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맞대응을 하거나 그쪽 시청률을 빼앗아 올 편성전략만 쓸 것이 아니라 방송사별로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해 이를 통한 경쟁으로 방송문화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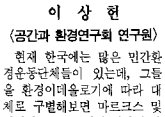
공영방송인 KBS가 상업방송인 SBS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겨뤄야 할 이유는 없다. 타 방송사가 만들 수 없는 수준 높은 교양물이나 고급문화를 담는 등 프로그램의 색깔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물론 공영방송이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수도 있고, 상업방송이 다큐물을 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데서 차별화 경쟁을 시도해야지 세 채널 모두가 베끼기 경쟁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방송은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 낙오되어 제자리를 빙빙 돌다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안 미 경

〈월간 '방송과 시청자' 기자〉

생존권 위협의 불침번, 환경

—한국환경단체 동향점검과 전망



이 상 헌

〈공간과 환경연구회 연구원〉

현재 한국에는 많은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환경이데올로기에 따라 대체로 구별해보면 마르크스 및 생태마르크스주의적 경향의 단체(반핵평화운동연합, 공추련, 부산공추협, 대구공추협등), 생태사회주의와 사회생태론적 지향의 점이지대에 해당하는 단체(환경과 공해연구회, 교회환경연구소, 푸른한반도, YWCA 등), 근본생태론적 지향의 단체(불교사회교육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등), 환경개량주의적 지향의 단체들(환경정책연구소,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로나누어진다.

넓은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단체들은 각각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문제를 전면적으로 담아낼 도구(특히 이론적 도구)가 부족해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존 운동이론의 틀속에서 운동을 전개시키기 때문에 환경자체에 대한 이론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도구적 입장보다 존재론적이고 관계론적 입장의 이론 개발과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본생태학적인 지향을 보이는 단체들 중에서 특히 기존 종교조직을 이용하는 단체들은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그 신념(특히 환경에 관련된 종교적 해석이나 교리등)을 사회로 유포시킬 일반적인 조직적 매개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조직적 차원에서 대부분의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의 운동이 실무자 운동으로 전락하거나, 강의식 교육만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러한가? 시민사회라는 경험이 없어서 참여가 저조한 것인가? 아니면 환경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문명비판적 과학관 등을 통한 환경운동을 운운하는 서구 선진국의 환경운동 형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의 운동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위기의 발생배경에는 세계체제의 분업구조 조정에 의해 피해를 본 경향이 많이 있고 그것이 집중된 것이 흔히 말하는 공해피해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지역에 기반한 운동이 되어야만 한다. 즉 우리나라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은 피해지역의 특수한 이익과 나머지 지역의 이익을 증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난무한 이론, 산발적 조직 운영 문제

피해지역 우선 집합적 실천에 치중해야

한편 이런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국제적인 연대의 측면이다. 즉 너무 피해지역에만 집착하는 경향은 전지구적 차원에 대한 감수성 상실과 국제적 NGO들과의 연대를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NGO와의 연대에 있어서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환경오염을 극도로 조장했던 다국적 기업이 NGO에 참여하는 경우에 과연 그것이 각 국가의 민중의 이익을(더구나 제3세계의 이익을)대변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운운하는 이데올로기에 쉬인 선전국의 이해를 가려내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번째는 미시적이고 조직내적인 차원의 논의이다. 환경운동이 실무자 중심의 운동이 되는 것은 아직 환경운동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문제는 왜 사람들이 환경운동에 참가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쉽게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의 특성이 무엇인가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첫째, 다소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지만,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정부 주도의 지역 불균등적 산업구조조정에 의해 피해지역의 주민운동에서 비롯되었고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하는 변수를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환경운동의 조직적 역량이 강화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비록 전지구적 환경위기라든가, 소비자의 과소비, 활동 방향이 대중들의 삶의 현장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 단체들이 이데올로기적 지향과는 별도로, 서로 비슷하게 캠페인이나 함의시위, 고발이나 사실규명등의 운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활동은 실무자들과 같이 운동에 전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조직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이 전개되기 쉬운 것이다. 현재 장려되고 있는 생활현장에서의 활동이라는 것이 기껏 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밀가루로 설렁이 하기, 우유팩 분리수거등인데(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러한 활동은 쥐지의 소박함을 일기에 과괴시키는 구조적 붐의(재활용시설의 미비나 재활용품의 저조 등)를 간파한 대량적 활동이 되기 쉽다. 따라서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은, 운동에 참여하는 대중들이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장(field)을 만들어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별로 환경운동 조직을 결성하되, 직능별 조직을 구성하여 작은 규모의 집합적 실천(여동일시 전략의 일환으로 대항 헤게모니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환경운동에 있어서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의 역할은 저수지의 역할에 비유될 수 있다. 공해피해지역의 주민들과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는 시민들을 매개시켜 환경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는 역할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한국의 환경운동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는 갈림길에서 중요한 물꼬트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SAM YANG GROUP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산은 세상에서
가장 큰 캠퍼스입니다!

책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지만
젊음이란 그릇을 다 채우기엔
책만으론 오히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없이 높고 큼으로 겸손의 미덕을
일러주고, 험준함과 불굴의 위용으로
강인한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이땅의 산은
내일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산과 같은 진취적인 기상으로 내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
삼양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삼양

●옥수수유 삼양사 (신설, 수곡, 서울, 신성, 전라시설) ●소맥분(삼양밀가루 외3사) ●설탕(삼양유화제주소외3사) ●삼양제당주식회사 ●삼양제분주식회사 ●전분(삼양밀가루주식회사) ●주정(외3사 소맥) ●C-제이 ●전분당(제일제당) ●삼양고려중앙연구소 ●사양 ●동아식품연구소 ●사양기술(동아연구소) ●삼양대학 ●여성문화원